



버스/택시 자격증 사진규격 통일

요구하는 사진 크기가 각각 다른 민원 서식의 규격을 통일하여 불편 해소

추진부서 |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☎031-8008-6019

개선배경



- 현재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에는 사진 규격이 동일하게 (가로 3.5cm, 세로 4.5cm) 정해져 있음
 - 국가에서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「국가신분증 운영 표준」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
- 하지만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거나 버스/택시 운전 자격을 받을 때 각기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고 있어, 운수종사자가 매번 사진을 다시 찍거나, 새로 인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.

〈 민원서류 현황 〉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별지 제30호까지) **4차정 2002. 4. 14.** (종 목)

(버스, 택시) 운전자격증(휴대용)

성 별: _____

생년월일: _____

자격종류: _____

자격취득일: _____

사 진: 2.5cm X 3cm

본의 사본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호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증명합니다.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별지 제30호까지) **4차정 2002. 4. 14.** (종 목)

(버스운전, 택시운전) 자격시험 응시원서

성 별: _____ 생년월일: _____ 성명: _____

자격종류: _____

대 반 직 지: (종대반직) (종대반직)

사 진: (종대반직) (종대반직)

응시자격: (종대반직) (종대반직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자격증 재발급 등 각종 서류 제출 시 요구하는 사진의 크기가 각각 달라 다시 촬영하거나 인화해야만 함

개선 후

서식에 필요하지 않은 사진은 생략하고, 자격증 등에 들어가는 사진의 규격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

- 버스 및 택시와 관련된 인·허가, 운전자격 취득 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취득(보유)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의 사진 기준을 준용할 경우 시간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버스,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음

추진과정



- ('24.5.7.)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신 및 검토
- ('24.5.16.) 국토교통부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개정 건의
 - 버스 및 택시와 관련된 각종 인·허가, 운전자격 취득 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취득(보유)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증 사진 기준으로 각종 민원 서류 제출 시 요구하는 사진 크기 통일
- ('24.11.5.)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의견조회
 -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사진제출을 삭제하고, 사진의 규격을 「국가신분증 운영 표준」에서 정하는 규격(가로 3.5cm, 세로 4.5cm)으로 변경

개선효과



- 전국 버스, 택시 운수종사자와 앞으로 운수업종에 종사하려는 국민이 매 신청마다 사진을 다시 찍거나,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새로 인화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

